

<해설>

㉠ 그렇게…… 그렇게도 배가 고프디야.

그 넓은 운동장을 다 걸어 나올 때까지 불현듯 어머니의 입에서 새어 나온 말은 꼭 그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를 향해 묻는 말이라기보다는 넋두리에 더 가까웠다. 교문을 나선 어머니는 집으로 가는 길을 제쳐 두고 웬일인지 곧장 다릿목에서 왼쪽으로 꺾어 드는 것이었다. 저만치 구호소 식당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런 그를 어머니는 별안간 무서운 힘으로 잡아끌었다.

그렇게…… 그렇게도 배가 고프디야-

1. 인물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A.

소설의 경우 비문학에서의 “정의”에 대응되는 것은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고, 어떠한 신념을 갖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앞으로 이 인물이 하게 되는 행동과 감정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해가 갑니다. (이는 원래 소설이라면 발단에서 쓰여지는 내용들이나, 평가원의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가 제한되어있기에, 보통 소설의 앞부분에 이러한 인물에 대해 추측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줍니다.)

B.

인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화가 이뤄지는 장면을 구성해야합니다. “결혼하자”라는 이야기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하는 것과, 근처 포장마차에서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다릅니다. “대화” 자체를 단절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자”와 “청자”, 그리고 “배경”이 포함된 장면 속에서 이해해야만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많은 경우, 특히 소설 첫 부분에서 대화로 인물에 대해 추측하게 할 때, 학생들은 장면속에서 대화를 이해하지 않고 쭉 달려버립니다. 이렇게 인물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채로 뒷 부분으로 진행하면 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B의 관점에서 장면을 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넓은 운동장을 아이와 함께 걸어나오면서,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마저도 아이에게 말했다기보다는 낮두리(한탄)을 한 것이죠.

그 말이

“그렇게도 배가 고프디야”입니다.

-> 이 말을 왜 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이해가 안 가기에 잘 납득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과, 아이가 무언가 배가 고파서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의심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이후 어머니는 학교 밖으로 나와, **웬일인지 곧장 왼쪽으로 꺾어서 구호소 식당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는 오른쪽으로 가셨을 것, 그리고 거기 집이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과,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일이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야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눈에 구호소 식당이 보이자,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뒷걸음질을 칩니다.

-> 간단하게 말하면 구호소 식당에 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즉 엄마는 아이를 구호소 식당에 들여보내려고, 반면, 아이는 가기 싫어하는 상황이죠. 어머니는 이런 아이를 강제로 구호소 식당에 잡아 넣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인 것은 왜 “그렇게도 배가 고프디야?”라는 말을 했냐는 것입니다.

“소설에서는 인물을 둘러싼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감정을 추측하면서 행동이 당위적으로 이뤄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정보를 잘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감정 부분의 경우에는 이의제기의 소지가 있어 문제로 나올때는 감정 그자체로 바로 확신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 가자. 아무리 없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더라도 나는 절대로 내 새끼를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응께. 시장에..... 시장에, 돌아가신 느그 아버지가 이런 꼴을 보시면 똥이라고 그러시끄나이.

어머니의 음성은 돌연 냉랭하게 변해 있었다. 끝내 그는 와앙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어코 구호소 식당 안의 때 묻은 널빤지 의자 위에 그를 끌어다가 앉혀 놓았다.

잠시 후 어머니가 손바닥에 받쳐 들고 온 것은 ㉡ 한 그릇의 국수였다. 긴 대나무 젓가락이 찢어져 있는 그것을 어머니는 그의 앞으로 밀어 놓으며 말했다.

1. ㉠ 가자. 아무리 없어서 못먹고 못입고 살더라도 나는 절대로 내 새끼를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응께. 시장에..... 시장에, 돌아가신 느그 아버지가 이런 꼴을 보시면 똥이라고 그러시끄나이.

㉠부분에서 드디어 어머니가 ㉡부분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단서가 나옵니다.

즉, 상황 전체가 보입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음식을 도둑질을 해서 아이를 혼내고, 가난해서 밥을 배고플 때, 올바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구호소 식당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2. 어머니의 음성은 돌연 냉랭하게 변해 있었다.

대화가 진행중일 때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어머니의 음성은 ㉠의 말씀을 하실 때의 음성입니다.

즉, 냉랭한 말투로 ㉠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글을 아래로 읽고, 또한 장면을 구성하지 않는 학생들은, 냉랭한 말투로 ㉠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일어나고 나서 냉랭한 음성으로 변했다고 착각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인이 글의 뒷부분에서 2번 문장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화에서는 장면구성이 같이 이뤄져야합니다.

3. 1,2에 의해 어머니가 아이를 냉엄하게 혼내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훈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훈육을 들으면서 참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이제 그만 훈육을 할만도 한데, 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기어코” 아이를 구호소 식당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올바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한 그릇의 국수를 들고 오십니다. 그 국수를 밀어놓으시면서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㉔ 먹어라이. 어서 먹어 보란 말다이......

어머니의 음성에는 어느새 아까의 냉랭함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는 몇 번 망설이다가는 젓가락을 뽑아 들고 무 조각 하나가 덩그러니 떠 있는 그 구호용 가락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던 그는 그만 젓가락을 딸각 놓아 버리고 말았다. 마주 앉아서 그때까지 그를 줄곧 지켜보고 있었을 어머니의 눈에는 소리도 없이 눈물이 그득히 괴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탁자 밑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는 어머니의 낡은 먹고무신을 내려다보며 그는 갑자기 목구멍이 뻘근해져 움을 느껴야 했다.

그 후, 그는 두 번 다시 그 빈민 구호소 식당 앞에서 얼쩡 거리지 않았다. 아마도 그런 기억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까지도 국수는 그에게 여전히 싫어하는 음식으로 남아 있었다.

1. ㉔ 먹어라이. 어서 먹어 보란 말다이..

2. 어머니의 음성에는 어느새 아까의 냉랭함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마찬가지로 ㉔과 함께 같이 이해해줘야하는 부분입니다.

3. 그는 몇 번 망설이다가는 젓가락을 뽑아 들고 무 조각 하나가 덩그러니 떠 있는 그 구호용 가락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아이가 먹을지 말지 망설이다가는, 국수를 먹기 시작합니다.

4. 문득 고개를 들었던 그는 그만 젓가락을 딸깍 놓아버리고 말았다.

?????- 갑자기 젓가락을 놓아버립니다.

뭐지 싶습니다.

5. 마주 앉아서 그때까지 그를 줄곧 지켜보고 있었을 어머니의 눈에 소리고 없이 눈물이 그득이 괴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가 충분히 해설하지 못하고 간 곳이 4와 5입니다.

4에서 아이가 젓가락을 딸깍 놓아버리고 만 것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괴어오르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즉

1. 아이는 문득 고개를 들었고
2. 고개를 드니까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3. 그래서 젓가락을 놓아버린 겁니다.

아이는 2. 때문에 굉장히 놀랐을 것이며, 제 수업시간에 “가슴이 먹먹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이런 “어머니의 눈물”을 본 아이의 반응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공감만 하라고 넘어가서 제대로 서술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 탁자 밑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는 어머니의 낡은 먹고무신을 내려다보며 그는 갑자기 목구멍이 뻘근해져움을 느껴야 했다.

우는 어머니의 모습과, 어머니의 낡은 고무신을 보며 그는 슬프고 먹먹한 감정을 느끼는 듯합니다.

다음 문단은 생략하지만, 이런 경험은 그에게 안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국수를 별로 안좋아합니다. 어느정도 사연이 이해가 갑니다.

(중략) 이후

어머니한테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조짐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두 달 전쯤부터였다. 그날따라 겨울이 전에 없이 일찍 앞당겨 찾아온 듯한 늦가을 날씨로 밖은 유난히 쌀렁했다. 젓가락으로 밥알을 헤아리듯 하며 맛없는 아침상을 받고 있노라니까 아내가 심상찮은 기색으로 곁에 쫓그려 앉는 것이었다. 그녀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짐짓 신경질적인 표정부터 준비했다. 그즈음은 마침 지난달의 봉급을 받지 못한 데다가 그달 봉급마저도 벌써 며칠째 넘기고 있던 참이었으므로, 이번에도 또 아내의 입에서 보나마나 궁색한 소리가 튀어나오리라고 지레짐작했던 때문이었다. 급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직장을 뗐 하러 나다녀야 하느냐는 당연한 투정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던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아침은 그게 아니었다.

A. 중략 이후이기 때문에 시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체크해야합니다.

뭔가 그 아이가 커서 봉급까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B. 어느정도 쪽 읽어나가면 어머니에 관해 무언가 안좋은듯한 느낌이 일관되게 문장내에서 반복되고 있고,

특히 마지막 문장인 “그러나 이날 아침은 그게 아니었다”에서 평소와는 굉장히 다른 일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보. 나가시기 전에 어머님 좀 잠시 들여다보세요 암만 해도…….

아니 왜. 감기약을 지어 드렸는데도 여전히 차도가 없으시대? 며칠 전부터 몸이 편찮으시다고 누워 계시는 줄은 그도 알고 있었다. 병원에 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특별히 아픈 데는 없노라고, 아마도 고뿔인 것 같으니까 누워 있으면 곧 편찮아질 거라고 하며 어머니는 손을 내젓던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 저어, 암만해도 어머님이 좀 이상해지신 것 같단 말예요.

그,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내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어정쩡한 표정으로 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뒤통수를 때렸다.

아무리 봐도 예전 같지가 않으시다구요. 그렇게 정신이 총총하시던 분이 별안간 무슨 말인지도 모를 헛소리를 하시기도 하고……. 어찌다가는 또 말짱해 보이시는 것 같다가도 막상 물어 보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일부러 그러시는가 했는데, 글썄 그게 아니예요.

도대체 난데없이 무슨 소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설마 어머니가 그럴 리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웬지 섬뜩한 예감에 그는 손가락을 놓고 곧장 건너가 보았다.

그냥 읽어나가면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저런 어려운 형편에 자신을 길러주신 어머니가, 무언가 안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름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인공은 자신의 직감을 겉으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안좋은 일이 있을 거 같을 때 먼저 부정부터 해보는 반응입니다.

잘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 문장에 “곧장 건너가 보았다.”는 것도 이 사람이 겉으로는 부정하지만 굉장히 안좋은 일을 직감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해줍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무얼 생각하는지 멀거니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의외로 안색이 나아 보였으므로 그는 적이 맘을 놓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두 번씩이나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에도 대답이 없었다. 그저 꼼짝도 하지 않고 망연한 시선을 천장의 어느 한 점에 멈춰 두고 있을 뿐이었다. 한동안 멍청하게 앉아 있던 그가 자리에서 마악 일어서려 할 때였다.

㉔ 찬우야이!

어머니의 입에서 불쑥 그 한마디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직감적으로 어떤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휩싸 안는 것 같았다. 아직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적이 없었다. 적어도 그가 결혼한 후로는 그랬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그가 놀랐던 것은 어머니의 음성에서였다. 그것은 이미 예전의 귀에 익은 음성이 아니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흘러나오곤 하던 그 목소리에는 대신 어딘가 냉랭하면서도 들떠 있는 듯한 건조함이 배어 있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내심 섬찟했던 것은 바로 그 생경한 이질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놀란 눈으로 황급히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1.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무얼 생각하는지 멀거니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저 꼼짝도 하지 않고 망연한 시선을 천장의 어느 한 점에 멈춰 두고 있었을 뿐이었다.

A.

어머니의 모습이 “묘사”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은 문장 하나하나를 외워서 볼 것이 아닌 하나의 모습으로 네 문장을 합쳐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주인공에게는 단 하나의 장면이었을 뿐이니깐요. 간단하게, 어머니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앞선 내용들과 합치면 치매나 심한 건망증이 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 ㄹ“찬우야이”.

3. 어머니의 입에서 불쑥 그 한마디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직감적으로 어떤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휩싸앉는 것 같았다. 아직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적이 없었다. 적어도 그가 결혼한 후로는 그랬다.

그것은 이미 예전의 귀에 익은 음성이 아니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흘러나오곤 하던 그 목소리에는 대신 어딘가 냉랭하면서도 들떠 있는 듯한 건조함이 배어있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내심 섬찟했던 것은 바로 그 생 격한 이질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A.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소리와 그것이 어떻게 들렸는지(3.의 볼드체)사시에 글 내부에서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이해가 되어야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엄마의 목소리나 말하는 방식이 평소랑 달라서 굉장히 불길하고, 이질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 찬우야이. 어서 꼬두메로 돌아가자이. 느그 아부지랑 찬세가
얼매나 기다리겠냐아. 더 추워지기 전에 싸게싸게 집으로 가야
한단 말다이.

어머니는 나직하게, 그러나 힘이 서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가 너무 당황하여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얼른
쉽사리 가려낼 수가 없었다.

- 임철우, 「눈이 오면」 -

이미 소설의 과거시점에서도 아버지는 돌아가셨었는데, “느그 아부지”
가 나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아버지는 안 계시고요.

아마도 더 과거의 시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걸 거 같네요.

이런 말을 듣자, 아들은 당황합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너무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니 굉장히 당황스럽겠지요.

45.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눈이 오면』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발화 내용과 어우러져 ‘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수치심, 죄책감, 불길함, 섬찝함, 당혹감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특정한 행동을 야기한다.

- ① ㉠에서 ‘어머니’가 넋두리에 가까운 말로 아들의 배고픔을 언급한 것은 ‘그’가 구호소 식당을 보았을 때 느낀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이어지는군.
- ② ㉡에서 ‘어머니’가 냉랭한 음성으로 ‘아버지’를 언급한 것은 ‘그’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결국 ‘그’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군.
- ③ ㉢에서 ‘어머니’가 냉랭함이 사라진 음성으로 ‘그’에게 국수를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그’에게 불길함을 느끼게 하여 젓가락을 딸각 놓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군.
- ④ ㉣에서 ‘어머니’가 생경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에게 ‘어머니’의 변화를 인식하게 하여 섬찝함을 느끼게 하는군.
- ⑤ ㉤에서 ‘어머니’가 힘이 서린 목소리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어 ‘그’에게 당혹감을 갖게 하는군.

아이들이 주로 고르는 선지는 2번과 3번입니다. 이 중 답은 3번인데요.

아이들이 2번을 고르게 되는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을 쳤다. 그런 그를 어머니는 별안간 무서운 힘으로 잡아끌었다.

㉔가자. 아무리 없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더라도 나는 절대로 내 새끼를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응께. 시상에.....
시상에, 돌아가신 느그 아버지가 이런 꼴을 보시면 뭇이라고
그러시끄나이.

어머니의 음성은 돌연 냉랭하게 변해 있었다. 끝내 그는 와양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어코 구호소 식당 안의 때 묻은 널빤지 의자 위에 그를 끌어다가 앉혀 놓았다.

잠시 후 어머니가 손바닥에 받쳐 들고 온 것은 ㉕한 그릇의 국수였다. 긴 대나무 젓가락이 찢어져 있는 그것을 어머니는 그의 앞으로 밀어 놓으며 말했다.

여기에서 ㄴ 부분은 어머니가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냉엄하게 혼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아이가 울음을 참다가 울어버리고요.

-> 이때 죄책감이라는 말이 글 내에 쓰여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혼나고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고 있고, 아이가 울음을 참다가 울었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있을 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을 틀리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를 약 14%의 학생이 골랐는데요. 이들은 상황을 기반으로 정서가 개연적인지 판단하기 보다는 눈으로 보여진 지문만을 확인해 죄책감이 글 내부에 쓰여있지 않으니 틀렸다고 그은 것입니다.

반면, 1,4,5 의 정서는 글 내부에 직접적으로 기술되어있으니 고르지 않았구요.

그렇다면 3번은 어떨까요?

이 부분에서 제 해설이 오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원래 해설은 이렇습니다.

젓가락을 딸각 놓는 행위는 “불길함”에 의한 것이 아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본 아이의 상황을 상상하면 불길함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불길함을 느낄 여지가 없다입니다.

㉔ 먹어라이. 어서 먹어 보란 말다이.....

어머니의 음성에는 어느새 아까의 냉랭함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는 몇 번 망설이다가는 젓가락을 뽑아 들고 무 조각 하나가 덩그러니 떠 있는 그 구호용 가락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던 그는 그만 젓가락을 딸각 놓아 버리고 말았다. 마주 앉아서 그때까지 그를 줄곧 지켜보고 있었을 어머니의 눈에는 소리도 없이 눈물이 그득히 꺾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탁자 밑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는 어머니의 낡은 먹고무신을 내려다보며 그는 갑자기 목구멍이 뻐근해져 움을 느껴야 했다.

문제는 이 부분에서 제가 젓가락을 놓는 것과 ㉔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갔다는 점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

A. 일단 앞서 설명했듯이 제 해설 또한 맞기는 합니다.

아이가 젓가락을 딸각 놓아버리고 만 것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꺾어오르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즉

1. 아이는 문득 고개를 들었고
2. 고개를 드니까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3. 그래서 젓가락을 놓쳐버린 겁니다.

아이는 2. 때문에 굉장히 놀랐을 것이며, 제 수업시간에 “가슴이 먹먹했을 것”이라는 얘기

를 한 것은 이런 “어머니의 눈물”을 본 아이의 반응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길함은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제 해설은 부족했지만 맞기는 했던 해설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전달을 못했기에 여러분에게 이상한 해설로 느껴졌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B. 하지만, 동시에 코드킴님의 비판처럼 ㄷ은 아이가 가락국수를 먹게 하는데 영향을 주지, 젓가락을 놓게하는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인과성이 틀린 것을 서로 붙여놓다보니

“젓가락을 놓는 다는 것”을 위주로 보면 “불길함”이

ㄷ을 위주로 보면 “젓가락을 놓는 것”이 틀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B부분을 제대로 해설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마음은 바쁘고, 감정에 공감하는 것 만으로 쉽게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부정확하게 해설해버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 <눈이 오면> 해설의 끝입니다.